

EMMANUEL

임마누엘 [성령호]

성령을
소멸치 말라

특집

가정안의 지혜로운 성령, 화요 여성예배로 오세요

2019년 단기선교를 돌아보며 - 단기선교가 뿌려놓은 영혼구원의 씨앗
시대를 분별하라 -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애화 현장, 누가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인가?

목장 소개 - 기도와 응답이 끊이지 않는 요르단 목장

축구 꿈나무 소년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 유년부 Sean Kim 전도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아름답게

마 28:20

Contents

목차

02 성령호를 열며

말씀의 창

담임목사 칼럼 - 성령을 소멸치 말라

나를 세우는 말씀 -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살리는 찬양 - 찬양, 성령이 보내주신 선물같은 은사

12 빛과 소금

믿음의 선진들

2019년 단기선교를 돌아보며

단기선교가 뿌려놓은 영혼구원의 씨앗

땅 끝에서 온 편지

시대를 분별하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애화

특집 가정안의 성령, 지혜로운 화요여성예배로 오세요

일대일 양육

커피브레이크

큐티 사역

기도하는 엄마들

성경공부

아버지의 자녀양육 모임

임마누엘 어와나 (AWANA)

목차

48 실만한 물가

시가 있는 풍경

크리스찬 명언

도서실 신간 서적

사행시 - 권사회

임마누엘 카툰

임마누엘 레시피

55 임마누엘 사람들

사진으로 보는 임마누엘

인터뷰

구원 간증

세례 간증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목장 소개

행복한 사람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는 믿는 어머니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처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간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당시 저의 친구들과 저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제 생애에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로 생각됩니다. 여전히 철없는 아이들이었지만, 우리들은 철야기도를 밥먹듯이 하였고, 밤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무서운 줄 모르고 기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흥집회로 모일 때는 중학생인 우리들뿐 아니라 초등학교생들까지도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집회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찬송으로 목이 쉬어서 갈라진 거친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실망하여 냉소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며, 기도를 멀리하던 시기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좋은 실적을 쌓으면서 영영 주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포기하고 1983년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1985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1987년에 미국에 유학을 오면서, 여러 면에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내외는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경제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했고, 제가 자랐던 교

회와 어머니와 친구들을 떠나 신앙적으로도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1992년 봄에 드디어 학교를 떠나 산호세로 오면서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 곳의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담임목회를 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밟는 풀타임 사역이나 부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작된 담임목회였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제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품어주셨던 권사님들의 사랑과 장로님들의 섬김과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저를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주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즘도 성령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여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늘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 곁으로 떠나시기 전에(요13:1)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14:1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14:26).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근심할 때,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16:7).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떠나신 후, 드디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땅 위에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행2장).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지난 2천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교회의 지체로 영입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응답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전해진 복음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가르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고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보내주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살전5:19), 오히려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온전히 순종합시다. 성령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글 | 손원배 목사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저는 15년전 이곳 미국땅을 밟음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45살이 되었으니 제 나이 30살이 되어서야 육신의 아버지 외에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의 나이는 15살 쯤 되었으나보다 하며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소그룹을 통한 과정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간증문을 쓰는 과정였는데 정확히 내가 언제 어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세례를 주심으로 나의 신분을 바꾸어주신 날도 있었고, 방언을 주신 날의 감격도 떠오르고, 유산을 하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통감하는 은혜를 주셨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워 이혼을 결심한 날, 예비하신 한 지체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남편을 이해하고 다시 사랑할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은혜도 잊지 못합니다. 차분히 앉아 그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헤아려보니 제가 거져받은 은혜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부어주심이 당시의 감격으로 기억속에 남아있을 뿐 살아오면서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

히 누릴수 없음이 답답했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복음을 설명할순 있었지만 믿음과 지식이 부족했기에 내 입술엔 힘이 없었고 믿음없는 순종의 태도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상태는, 굳이 설명하자면 단팔이 아주 조금만 들어있는 찌뽕인 것 같습니다.

어렵듯이 주님을 알듯말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마누엘 화요 여성 예배 안의 소그룹인 일대일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안의 말씀들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은 영생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펴서 보여줘야 믿음이 생기는 도마같은 내가 말씀 앞에 고꾸라지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 세상적으로 이해했을땐 그저 책에 써있는 글씨에 불과하니깐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나니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지난날 미리 주신 수많은 체험들 위로 덧입혀지면서 내가 이미 누린 은혜의 가치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해졌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역시 말씀밖에 없어'라고 한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니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한 듯 하여 기쁘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로 발걸음한지 15년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배우게 되고 그 아들 예수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니 내 자신이 너무 존귀해졌습니다. 어렵듯이 아는 건 힘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내게 부어주셔야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드러지는 임마누엘의 여성 예배와 소그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글 | 이신디 (여성사역부 운영팀)



찬양, 성령이 보내주신 선물같은 은사

어린시절 예배시간에 교회 성가대와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영으로 마무리되는 찬양 연주가 어린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 다. 그 후로도 교회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중에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많은 연주 능력도 필요없고 언젠가 저도 저 자리에서 같이 찬양 연주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제 바램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원래 미술을 전공하고 있던 제가 갑자기 음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부모님은 물론이고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후 기적과 같이 한 스승님을 만나 하루 아침에 저의 전공은 정말 바이올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했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를 받아주셨고 가르칠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늦게 시작한 악기인 만큼 다른 친구들과보다 슬럼프도 일찍 찾아왔고, 그때마다 해결책은 늘 찬송가 연주였습니다. 이 방법은 음악을 전공하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었는데, 슬럼프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했던 저에게 너무 생소했기에 이해가 가지 않았

습니다. 신기하게도 찬송가는 단시간에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결국 슬럼프는 제 영적 상태와 크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찬양은 성령님이 부리는 마법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편찮으신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교회를 못가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찬송가를 연주해 드리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부르셔서 멜로디도 익숙했기에 가사는 읽어볼 생각도 하지않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임종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연주가 아닌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안고있는 찬송가였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알기엔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왜 이 찬송가를 붙들고 사셨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에 쓰여진 가사같이 할머니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향집을 생각하며 죽음도 두려워 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후로 얼마 후 저희 부모님께서선 선교사 파송을 받으셔서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은 선교지에서 찬송가 301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이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고 지금도 이 찬송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찬송가의 멜로디에 마음이 흔들렸고 가사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에 감사함을 깨닫고 빠르게 하나님 앞에 자리잡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한번 찬양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루빨리 세상 밖으로 나와 큰소리로 찬양하며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33)

저는 이제 두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어느덧 매일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는 아이들을 보며 반대로 제가 힘을 얻고 화평이 가득한 아이들 얼굴과 입술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 입술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겠다고 약속하고 바이올린과 지금까지 오게된 것,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신 동안 입술로 끊임 없이 고백하셨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제 아이들로 이어진 순수한 찬양까지 이 모든 은혜가 저를 인도하신 성령의 힘을 고백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찬양이 없이는 예배도 없고 찬양이 없는 우리는 죽은 영혼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글 | 서나연 (임마누엘 유스오케스트라 교사)

한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씨를 뿌리는 사명으로 조선을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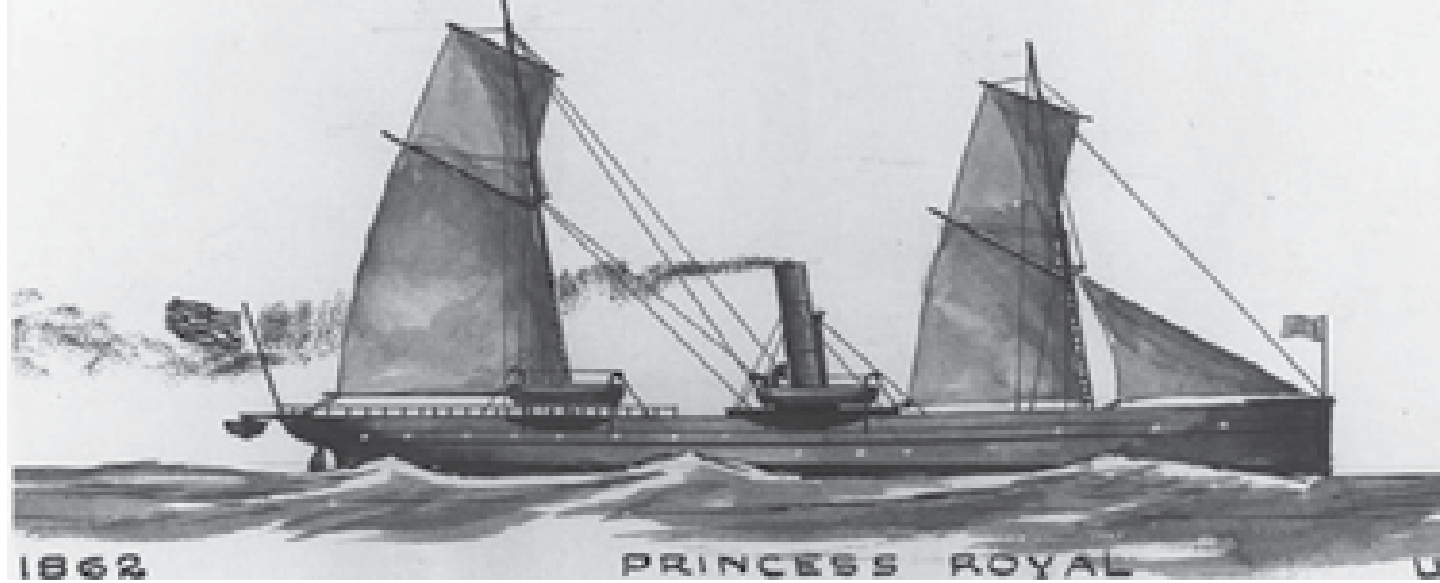


로버트 토마스
(1840~1866)

토병으로 죽게 되고 선임 선교사와의 갈등으로 한때 선교사역을 포기할 지경에 이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해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하던 그에게 조선 선교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다시금 복음 사역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는 같은 해 9월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여권을 전하며 전도하게 된다.

베이징으로 되돌아간 후, 런던으로부터 정식으로 조선 선교를 허락 받고 다시 조선에 갈 배편을 찾던 그 앞에 제너럴셔먼호가 나타난다. 1866년 중국을 떠난 셔먼호는 일주일 후 평양근처 대동강변에 도착했고 역시 우려하던 대로 조선군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대동강변에 좌초하게 된 셔먼호는 배가 불타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고 화염에 휩싸인 제너럴셔먼호 갑판 위에서 백기를 들고 사력을 다해, 강가로 성경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다.

결국 그는 마지막 남은 한권의 성경책을 품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 들었고 곧 조선군에게 생포되었다. 조선 군인들은 생포된 제너럴셔먼호 선원들을 처참하게 몽둥이로 죽이든지 칼로 목을 베어 죽이고 있었다. 생포된 토마스 선교사 역시 목베임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는데, 그 임무를 맡은 조선 군사가 바로 박춘권이라는 자였다. 박춘권이 칼을 뽑아들자 토마스 선교사는 급히 자기



품에 들렸던 성경책을 꺼내어 웃으며서 그에게 내밀었고 그리고 두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오..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열매가 없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는 사명,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며 죽어간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 27세. 죽는 순간 그는 자신이 순교의 피를 흘려던 평양 대동강변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고 성경책을 받았던 박춘권은 훗날 예수님을 믿고 평양 교회의 장로 직책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경을 받은 이들 중에 훗날 평양에 유력한 신앙가문을 일으킨 이들이 많은데 장사포의 흥신길은 서가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고, 만경대의 최치량은 평양 교회의 창설자가 되었다. 또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종이가 너무 좋다고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 벽지를 바른 박영식의 집은 널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

비록 정식으로 조선땅을 밟아보지도 못한채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죽음을 당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하지만 그의 죽음 뒤에야 비로소 조선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서툰 한국말 실력에 가진 것이라곤 한문으로 된 성경책 한권 뿐이었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조선 땅에 복음의 부흥을 위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다.

출처 | 한국컴퓨터 선교회 인명사전 '복음에 미치다' 정리 | 이정열



2019년 단기선교를 돌아보며

단기선교가 뿌려 놓은 영혼 구원의 씨앗

뱅갈 / 미얀마 **니제르**
키르기스스탄
프레즈노 몽족
네팔 - 헤토다

2019 Missionary

아이티 **코스타리카**
태국
네팔 - 포가라 / 베니
네팔 - 카투만두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선교지의 기적

2019년은 임마누엘 교회의 각 지체가 선교를 위해 뛰어온 한해였습니다. 2월 각 선교지의 선교사분들을 모시고 가진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목장 단위로 단기 선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1월 니제르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12월 인도까지 17개 팀에서 220명의 성도가 18개 지역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였고 수행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선교지역의 여름성경학교와 의료 선교, 건축 선교 등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활동이 이루어졌고, 이 모든 모습의 가운데는 우리가 오로지 이 세상에 머물러있을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지난 해 나바호 선교를 다녀온 윤진영 부목자님의 간증과 같이, 짧은 기간 이루어지는 선교이지만 이 발걸음이 몇년을 되풀이 되어 그들에게 친구가 될 때,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할 때, 복음을 전하는 마음도 전달이 될 것이라는 단기선교. 이렇게 2019년은 임마누엘 단기선교팀의 꿈이 어느지역에서는 씨앗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열매로 맺히기 시작하는 한해였습니다. 18개 지역 단기 선교 중, 상반기에 선교를 마친 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연결되는 선교의 마음을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제르



먼저 갔다 오신 집사님의 경험으로 그곳에서는 먹을것이 없으니, 밑반찬과 식재료를 준비해 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식사를 해본적이 없다며 좋아하셨고, 선교사님이 아들같이 여기는 의대생인 란동이 하는 말이, "1년만 이곳에 있어달라"고, "자기 엄마가 이렇게 잘 드시는 것 처음 보았다"고....

선교사님을 보면 늘 바쁘시고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는데, 어디서 그런 힘과 열정이 나오는지, 그 분의 건강 상태로는 그 곳에 계시면 안되는 것을 알기에 란동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역인 것을 그분의 간증을 듣고, 또 직접 보면서 알 것 같았습니다. 98%의 무슬림,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겁고, 어둡고, 힘에 겨워 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방문한 현지의 교회, 그곳은 축제였습니다. 화려한 그들의 전통 드레스, 춤과 찬양으로 시간 가는줄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며 저렇게 부르는 찬양도 있나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설교는 4가지 언어로 동시통역 되었는데 다른 두 종족의 언어와, 불어, 영어였습니다. 저들이 있기 까지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희생과 사랑으로 섬긴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열흘은 짧기도 했지만, 나에겐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끼 두끼도 힘겹게 연명해가는 까만 피부의 사람들. 그곳에서는 생선도 없고,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으며. 옥수수나 수수가루, 돌이 씹히는 음식으로 겨우 한끼를 먹고 배를 채워야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작은 방한칸 시니어 아파트에 살지만, 여전히 가진 것이 많지요. 이번 선교여행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글 | 이상희 권사 (1월 니제르 단기 선교 참여)

뱅갈/미얀마

가정 교회 개척을 위해 방문중인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자매님이 마을에 전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힌두 교리로서 대적을 하시며 함께하신 마을 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도록 방해를 하셨기에 참 힘든 자리였습니다. 결국 가정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정을 나서는데, 주님께서 저희 팀에게 공통으로 주신 마음이 그를 위해 저희 선교팀을 그 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한분을 놓고 십자가까지 인내하신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으며 저희가 할 일이 그분에게 다시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의 살아 계심을 이야기하고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짧게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우상에 잡힌 분이셨으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그 곳은 그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에 다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다져보게 됩니다.

글 | 이재희 집사 (2월 25일 ~ 3월 8일, 인도, 미얀마 단기 선교 참여)

아이티

저희가 간곳은 정광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마을 아이들과 그 마을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려 있었고, 옷이 없어 해진 옷을 입었고 집집에 전기가 들어 오지 않아서 암흑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맨발로 포장도 안 돼 있는 자갈길을 뛰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 시골마을을 보며 또 그 곳 사람들을 보며 10년 전 북한에서 살던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티 땅은 북한 보다 훨씬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를 한시간 정도면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일 예배를 아침 8시에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지상에서의 천국을 보듯 했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궁핍히 여길수 밖에 없는데 그들의 영적인 삶은 저보다 훨씬 나음을 느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이번 추수할 것이 너무 많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이 모자랐던 아이티 단기선교를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글 | 오인혜 자매 (5월 24일 ~ 29일 아이티 단기 선교 참여)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에서 마지막 날 저녁 마지막 팀 미팅을 하는 가운데 작은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2-3년 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팀을 통해 섬긴 이 아이들이 중고등 학생이 되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주변 지역으로 선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양육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비전을 주셔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아이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곳 키르기즈스탄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번 영어 성경 캠프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아이들을 위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글 | 김우정 (6월 28일 ~ 7월 5일, 키르기즈스탄 교회 청소년 영어 성경캠프 참여)

코스타리카

만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태껏 보아왔던 인디안들의 모습과 무엇인가 다른 느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쭙받더니 그곳은 마초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눈이 많이 나쁜 17살 먹은 고등학생 딸인 여자 아이가 서너 살 먹은 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각나서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린 남자 아이들의 폭력에 휘둘렸을 그 아이들, 그렇게 내팽개쳐진 아이들이 또다른 가정 폭력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그 곳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눈물이



2019년 단기선교를 돌아보며

프레즈노 몽족

있는 곳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나같은 보잘 것 없는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마르게 해 드려야 할까?” 하는 마음의 여운이 남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선교 여정 속에서도 수시로 그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며,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글 | 한원 부목자 (6월 12~16일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참여)

우리가 몽족 아이들에게 준비했던 VBS 표제 처럼 When life is unfair, God is good!!!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몽족친구들의 상황을 보면서 더 피부에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평하지 않으며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TA아이들의 간증들이 가슴 깊이 와 닿고 지금 산호세에서 풍요로운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3일 째되는 날 밤에 숙소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수 없을 정도로 제안의 상처들이 스물 스물 올라왔고, 참고 있었던 묵은 저의 감정들이 하나님께 폭발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VBS를 하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갔다가 그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교회를 사랑할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를 보며,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한 성도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기 힘쓰며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내 인생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그 땅을 보고 그 땅의 사람들과 교제 하며 그 땅을 위해서 흘리는 하나님 눈물과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글 | 최누리 (7월 14~17일 프레즈노 몽족 단기선교 VBS 교사로 참여)

네팔 - 헤토다

3번째라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한 길을 따라 도착한 헤토다 예수 문화 학교.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보조 교사와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나며, 그 성장에 따라 가야할 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보조교사는 기숙 학교로, 혹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 직업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는 선생님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 문화 학교를 거쳐간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야버스티와 바네스바띠의 삶은 제가 어렸을 적 살았던, 나의 환경보다는 나쁘지만, 나름대로 그 마을의 전통과 방식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복음을 들어 보지도 못했고, 마을에 교회라는 것도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선교사님과 믿음의 형들과 누나를 통하여 매일 말씀과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봅니다.

어느 집사님이 네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엄청 놀리는 곳이라고, 맞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영의 힘이 무척이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꾸기 정말 어려운 전통과 종교의 배경을 가진 이들입니다. 속히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오기를, 그 때에 많은 네팔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응답하기를 기도합니다.

글 | 이종상 집사 (7월 24일 ~ 8월 2일 헤토다 단기선교 참여)

태국

여러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이번 선교여행에 정말 안 가려고 너무나 많은 애를 썼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번 선교여행에 대한 불가능함에 대한 합리적 이유들을 나열하며 하나님의 “가지 마라” 라는 음성을 듣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전에도 나를 잡아주었던 찬양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 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적 열정이 이번엔 그저 맘속의 복받치는 감정으로 찬양한번 멋지게 맘 다해 올려드리거나 “주여 주여” 하면서 목에 피날때까지 통성기도 한번 화끈하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즉 행하는 믿음으로의 연결이 있어야할 때임을 저는 즉시 알수 있었습니다. 계속 마음 속에 아주 세미하지만 정확한 울림이 있었고 그렇게 저는 그 분의 관심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타일랜드에 가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진짜 무엇인가가 이 땅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윽고 결정후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선물로 화답해 주셨고 이번에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비밀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글 | 설정선 집사 (6월 7~17일 태국 단기 선교 참여)

네팔 - 포카라 / 베니

그동안 단기선교를 다니면서 선교팀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팀원분들을 불러 주시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서로 환경과 배경, 처지가 다르지만, 3개월간의 훈련과 모임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룸을 보았습니다.

한방 의료사역이 결정된 상태에서, 개별 선택강의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가정교회에 관한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는 분들께 영어로 강의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고 선택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베드로가 물위를 걸을 때, 그들의 순종과 결단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얻게 해 주시고, 정말 꼼꼼히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신앙적인 배경도 모르고 가정교회에 대한 배경도 모른채, 적은 숫자가 모인 선교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한 사역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은 정말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일하셨음을 직접 몸으로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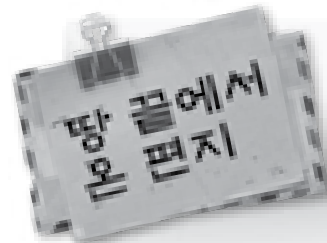
글 | 이정석 (9월 7~16일, 네팔 포카라 단기선교 참여)

네팔 - 카투만두

네팔은 금요일,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매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하나 둘씩 예배당을 채워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어른들까지 같이 드리는 예배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찬양과 장로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하였습니다. 일요일에는 한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거의 2~300명 되는 성도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팔에 왜 이리 한국사람들이 많은지 하고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거의 95% 이상의 성도들이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만을 섬기는 힘들고 어려운 곳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살든 주님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깨달았고 이제는 여러번 보아서인지 그들이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맺게 하셨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돕는 성도를 통해 새빛선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빛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글 | 유태근 집사 (9월 21~30일, 네팔 카투만두 단기 선교 참여)



키르기스스탄에서

9월16일 토요일

토요일... 기다리는 사람 없는 집앞 공원길로 김쌤은 오늘도 어김없이 나갔다. 김쌤이 집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의 걱정과 부담은 내 몫!

예측하기 힘든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온 김쌤의 이야기에 나는 세상 유행어로는 "소오름!" 그리고 "아 ㅎ ㄴ님께서 김쌤을 격려하고 위로하신 날" 이었구나를 느꼈다.

늘 그렇듯,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모르는이에게 비움을 전하는건 이곳상황에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도전이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아도 된다고까지 표현했었던 비움의 고통의 그도가 어찌면 그의 마음에 있었을까? 공공장소에서 전도지를 꺼내드는 용기는 내 기준에 무식할정도로 용감하다.

매주 만나야할 사람을 ㅎ님께서 보내신다던 김쌤은, 오늘 서커스에서 일하는 20 대후반의 청년을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김쌤은 아마도 비움으로 이끌어낼수있는 대화들을 진행했을것이다. 마침 스텐트맨 같은 일을 하는 서커스청년에게 죽음이 두렵지않냐고 김쌤은 질문했고 예상밖의 대답을 들었다.

전혀 두렵지않다던 청년은 이런저런 이야기후 주변을 살핀다음에야 김쌤 컷가에 손을 가리고 속삭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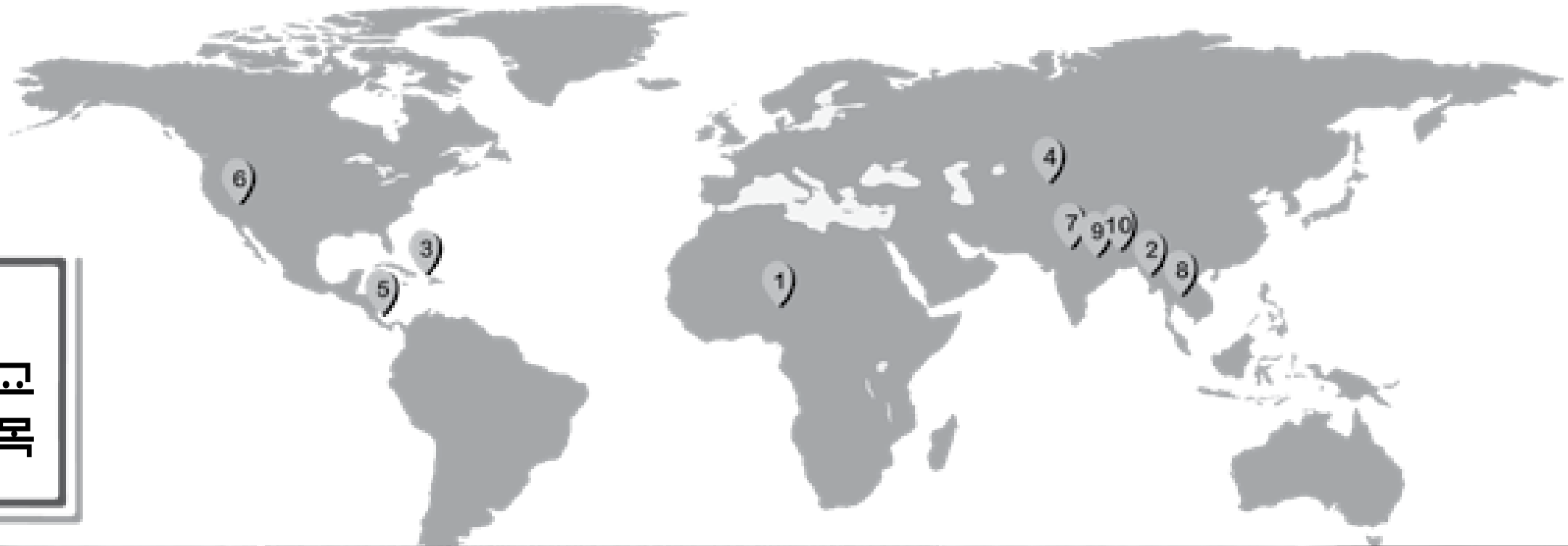
"나는 ㅎ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김쌤의 표정 그리고 심장떨림이 나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 얼마나 흥분하고 놀랐을까?

"사실 나도 ㅎ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답해줄수 있었던 김쌤은 그때 얼마나 위로와 힘을 받았을까!! 1%의 믿는자중 한사람을 그시간 김쌤에게 보내시고 이땅에서의 외로운 싸움이 결코 혼자애쓰이 아님을 알게하셨다.

우리의 평범한 삶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ㅎ님은 우리를 참 잘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나.

키르기스스탄에서 서지현 사모님의 어느 토요일 일기



2019
단기선교
기도제목

1. 니제르

- 정해림 선교사님과 19명의 학생들 그리고 현지 교사 16명의 안전과 성령충만을 위해서
-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그나라의 리더가 되고 니제르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2. 방갈/미얀마

- 마오빈 기숙사 학생들의 복음화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인도와 미얀마에 개척되어진 교회와 가정교회 그리고 리더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도록
- 인도에서 박해받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 자기우상에 잡혀 주님을 떠나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3. 아이티

- 아이티 국가의 치안과 정세가 하루 속히 안정되기를
- 정광 선교사, 김모경 선교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위험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 아이티 나라의 영혼 구원과 영적 전쟁에 보혜사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임하셔서 이나라 국교인 부도교(80%)와 대적하여 늘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기를

- 모이 지역에 성정 건축과 영적인 전쟁을 위한 중보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4. 키르기스스탄

- 안디옥 교회에 어린이 사역이 정착되어 다음 세대 영적 리더로 자라나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통하여 부모님들도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 김정진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연합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키르기스스탄과 중앙 아시아를 섬기도록
- 서지현 사모님 사역하시는 '케인대학교'에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는 학생들이 각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 2020년 영어 성경캠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팀원과 현지 교사들이 준비되도록

5.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에서 개최될 중남미 기독의료인 선교컨퍼런스를 위해
- 지역교회들과 단체들과의 연합사역을 위해, 매년 연합사역의 횡수가 늘어나 문화와 색깔도 다르고 사역하는 방법들이 다르지만 한가지

목표인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6. 프레즈노 몽족

- 여름 VBS 기간동안 참석했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매주 토요일 Out Reach 에 나와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 새로운 예배처소와 토요일 Out Reach 일일 선교팀 확보를 위해
- 주변 몽족,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교회들과의 협력을 위해

7. 네팔 헤토다

- 1,2 예수 문화 학교 교사들, 보조교사들과 교장선생님을 위해
-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의 동역자들을 위해, 후임자 선정 문제 잘 준비하시도록
- 네팔땅에 교회들의 영적부흥을 위해

8. 태국

- MK를 위한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 MK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 MK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 치앙마이 선교교회(양정금 선교사)와 동역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며, 계획중인 선교 센터가 잘 건축되도록

9. 네팔 포카라/베니

- 베니교회가 무스탕의 전초기지가 되어 산악지역인 "지" "레떼" 에 가정교회 두곳에 개척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흠어져 나아가는 베니교회가 될 수 있도록
- 포카라의 Jubilee 교회와 Father's House를 통하여 더 많은 청년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 Father's House 18명중 Deborah가 한국에 있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의 진학을 위하여, 입학 서류심사, 비자, 장학금 등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10. 네팔 카투만두

- 손원석,장소영 선교사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 새빛맹인교회와 시각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베데스다하우스, 아달사 학교의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선교와 영양프로그램 및 교육사역을 위해
-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순수하고 착하게 변해가고 있는 기쁨의 사역이 지속되기를

다음세대를 목표로 한 영적 세계관 전쟁!! 누가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인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애화 -Sexualization in Public Education” 현장!!

미전역에 “성교육 혁명” 이 시작되다!

2009년 오바마 전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교육 혁명 - Reform Education: Race to the Top”이라는 명칭아래 미전역에 National Common Core라는 새로운 교육지침을 시작하여 (2009-2010) 교육 혁명을 받아드린 주정부에서는 2013-2014년부터 Common Core 을 서서히 학교에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육 전문가들은 Common Core이 주입식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 사고력을 떨어뜨림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의 기준을 낮추며, 발전이 아닌 후태의 교육시스템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12개의 주들은 Common Core을 받지 않겠다는 법안을 통과 시킬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Common Core 안에는 수학, 영어 뿐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는 성교육이 자리잡아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10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자녀들을 목적인 성애화 정책들은 결국 반기독교 정책들로 변신되며 결과들은 너무나도 크고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15-18

캘리포니아의 교육 혁명 -친동성애 법안, 정책 활성화!

오바마 행정부의 Common Core 교육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캘리포니아는, 2010년 캘리포니아의 교육역사를 바꾸는 사악한 법안 SB-48을 시민들의 의견도 없이 주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친동성애 의원들 (민주당 100%) 끼리 통과시키고, 이들은 SB-48 반대서명운동까지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SB-48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K-12) 학년들의 교과서에 동성애 삶을 정상화 시킬 뿐 아니라, 동성 성행위 마저 정상이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모든 성교육 및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을 교과서 안에서 바꾸는 법안이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선포되는 문을 열어주는 법안이었습니다. 2012, 민주당 친동성애 의원들의 100% 지지에 의해 SB-1172를 통과시켰는데, SB1172는 성적체성 혼돈이 있는 학생들을 돕던 18세 미만의 학생 상담들(주로 기독교)을 폐지시키고 오히려 소아성애자가 정상적인 것을 암시한 법안입니다. 2015년 AB 329 - Sexual Health Education (Youth Health Act로 도 알려짐)라는 법안이 민주당 100%의 지지로 통과되며 SB48 과 AB329 의 합작이 2019년 1월에, “2019 Sex & Health Education Framework” 로 소개가 되고 5월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 실행되었습니다. 문제는, 2019년 5월부터 강행된 이 교육혁명은 학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은것입니다. 매우 교묘하게 적힌 법적 용어들은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교육쪽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혼돈스럽다는 하소연이 들어올 정도로 논란이 매우 많으나 결국 5월에 실행되었습니다.

SB 48, AB329의 합작 Comprehensive Sex Ed. (CSE)로 연결된 캘리포니아 성교육의 교묘함

CSE 의 문제는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적지 못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Sex Ed 성교육에서는 자녀들을 빼을 수(Opt Out) 있지만, 정작 동성애 성교육이 들어가는 Health Ed.에서는 Opt Out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수업이든, Sexual Orientation, Gender, Sexual Identity같은 동성애 성교육이 들어간 수업들(History, Anti-Bullying, Health, Safe Sex 등등)로부터는 자녀들을 Opt Out 할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현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이미 통과된 법에 의해, 공립학교들은 더이상 학부모들에게 어떤 materials로 성교육을 가르치게 되는지 알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학교에 물어보면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안심시키는 이야기만 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캘리포니아의 많은 학부모와 기독교 단체들이 Sit Out Day를 해와서 수 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빠짐으로 공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받던 자금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캘리포니아 기독교 단체들이 Opt Out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Opt Out 신청서를 학교에 무조건 제출할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Opt Out Form은 tvnext.org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기본틀 성교육의 구체적 내용 (Sex & Health Education Framework)

캘리포니아 K-12 보건 커리큘럼 프레임워크는 9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여러가지 부록들이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에서는 “성(sex)”, “성적인(sexual)”, “Sexuality”라는 단어들 842번 나오고, “젠더(성향)gender”라는 단어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성교육 과정에서만 67번 언급된 것을 포함해서 총239번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1,000 페이지의 전체 보건 교육의 기본틀에서 “금욕(절제)”에 대한 언급은 단지 2번 밖에 없는데, “금욕(절제)”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욕, 절제”가 절대 아닌,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 설명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별-sex”와 “성향-gender”를 혼돈스레 사용하여 성향이 마치 성별인 것처럼 문장을 적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한 예로, 5세 된 학생에게, “.....challenge gender stereotype if presented”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성별은 남녀로만 구분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이 “stereotype 고정관념이 아니냐?”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도록 유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기와 생식기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교사들은 실제 그 사람의 성별이 책에 묘사되어 있는 성기/생식기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알고 넘어가기:

Kindergarten 학년에서부터 없애야 한다는 “성별 미신”이란? 성별로 나눌수있는 색깔(핑크, 블루), 장난감, 그리고 좋아하는 놀이들 뿐만 아니라 옷과 몸의 일부를 포함해서 남/여 두 성별이 끌리는 것이 다르다는 모든 생물학적, 의학적 사실 및 인식들을 “고정관념” 들이라고 새롭게 정립시키는 가치관 세뇌교육입니다.

이 새 성교육 기본틀은 분홍색 드레스를 좋아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인 “마이 프린세스 보이”와 같은 책들을 읽도록 장려하고, 트랜스젠더가 된 성인들을 초청 강사로 수업에 초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 성교육의 기본틀은 어이없게도 신체 기관에 대한 건강 교훈에 관해서는, 학교 교사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이 다르다는 미신을 없애라”고 교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시피, 남녀생식기가 다르다는것을 이미 “myth, 미신” 으로 정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교육은 유치원에서 시작되지만, 모든 학년에서 재차 강조됩니다.

Chapter 3: Transitional Kindergarten Through Grade Three (K-3학년 일부분 번역)

“Dispelling myths about gender expectations in kindergarten can lay the groundwork for acceptance, inclusiveness, and an anti-bullying environment in schools,” the proposed framework states. “Gender non-conformity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re often at the root of many forms of bullying.”

“전통적으로 내려온 젠더, 성별에 대한 미신적인 교육 내용들은 (남,여는 다르다 라는 주장이나 성별에 따라 다른 행동양식같은것 등등)은 유치원서부터 더 이상 가르쳐서는 안될, 내버려야 할 교육내용이다. 이제는 유치원생들부터 누구든 수용하고, 포함시키고, 괴롭힘 방지 환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한다.”, “성별 부적합(혹은, 불일치)과 신체적 특징들이 종종 많은 형태의 괴롭힘의 뿌리이다 - 의미: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는것을 성별 부적합, 불일치라고 하는 것임.”

2019년 캘리포니아 새로운 성교육을 반대할 가장 큰 이유들

이 성교육 기본틀은 아이들에게 성 스펙트럼을 소개하는 “Who Are You?” 라는 책의 레슨 계획에 따르면, 아이들은 “The Gender Wheel”의 세 가지 층에 대한 수업을 받으면서, “어른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몸을 보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맞추려고 하지. 이것은 태어날 때 정해진 성으로써 남자 혹은 여자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것을 성별과 혼동한다. 그러나 성별은 네가 갖고 태어난 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 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내용 중에서: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www.cde.ca.gov/ci/he/cf/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성별 (sex)은 가짜고 젠더 또는 성향이 진짜다. 어른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있거나 혼돈된 것이다.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진 어른들, 혹은 부모들을 비정상인처럼 취

급하며, 아이들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교훈임) 또한,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 “pleasure”는 모든 사람이 연령에 상관없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4-6 학년 성교육 내용 중에서:

Framework Chapter 4, Page 63
전 학년에서 배운것을 확신시키는 동시한 층 더 나아가 수업이 진행됩니다.

예: 5학년 -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성별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지 않는다. 성별은 얼마든지 내 감정, 인격, 행동, 성적충동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은 결국 자신만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외, 수업시간에, 자신들이 “boy, girl”라는 단어를 뺀 상태에서 어떤 성별을 갖고 싶은지, 되고 싶은지 다른 성별놀이를 하기도 하며 동성애, 성전환자들을 동경하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제공받습니다.

7-8학년의 성교육 내용 중에서:

(문란한 초등학교의 성교육 이후엔 문란한 낙태 교육) 중학교 교사들에게 로맨틱한 관계를 위해 성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십대들이 한번에 한명의 성 파트너를 갖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 여, 아내, 남편 등의 성별을 구분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파트너”라는 명칭만을 사용하는것이 정상이다 라는 가르침을 낙태 대기업이자 설립정신부터 인종 차별주의인 Planned Parenthood 가 정기적으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것을 독려합니다.

7학년부터 12학년까지부터는 문란한 성교육뿐 아니라 alcohol, tobacco, other drug use, and emotional and personal health에 대해서까지 긍정적으로 교묘하게 아이들을 선동시키고 있습니다.

Lesson 12 - Anatomy (성관계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을 알려줌)

9-12학년까지의 내용 중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십대들이 피해야 할 다른 종류의 학대 (감정적, 성적, 신체적)들을 열거하면서 기독교 가치관을 이야기하는것도 그런것과 같은것으로 소개하며 그것은 곧 “영적 학대, Spiritual abuse” 라고 적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적 학대”의 예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해진 성별의 역할을 따르도록 얘기하는 것... 파트너가 즐기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 (즉 섹스 장난감이나 원하는 방식의 성관계)”을 들고 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받은 성별을 받아드리는 것은 영적인 억압이라고 까지 가르치는 것에 문제삼지 않고 한마디로, 출생시 성별을 따르고 존중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

이며, 해로운 사람들로 몰아가는 교훈이며, 이는 나치 시대때 사용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 전체에게 다성 (polysexual), 범성(pansexual), 무성(asexual) 을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교과서에 대한 모든 링크들 및 더 상세한 자료들은 Tvnext.org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단체 링크로 가셔서 “2019년 Sex & Health 성교육”을 검색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은 상상을 초월한 영적 전쟁에 휘말려 있으며, 생명과 죽음을 오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부모, 교역자들을 통해 기록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 신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 | 새라김 공동대표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Tvnext.org)





가정안의 성령 지혜로운 화요여성예배로 오세요

화요일 아침 10시 전후하여 임마누엘 동쪽 파킹랏은 자동차들로 꽉 차고 특히 미니밴들이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자동차 문이 열리고 아이들과 함께 내리는 엄마들, 심한 트래픽으로 카풀로 함께 오는 여성들, 혼자 가벼운 모습으로 도착하는 여성들이 삼삼오오 EM예배당으로 모여 듭니다. 이 모습은 찬양팀의 찬양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화요여성예배가 있는 화요일 아침 풍경입니다.

화요여성예배는 올해로 12년째 임마누엘 여성들과 이웃교회 여성들, 그리고 VIP 여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소그룹에서 진솔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화요여성예배는 Homestead 교회 시절 부목 자님들을 위한 모임에서 태동되었고, 매주 모여 드리는 여성들의 예배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12년간 화요여성예배가 지나온 발자취로 여러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중 Esther Project라는 VIP초청잔치를 해마다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VIP를 위해 기도하고, 초청장을 만들고, 당일 예배당 안을 여성들의 솜씨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예쁘게 세팅된 둥근 테이블, 작은 음악회, 손목사님의 복음 소개, 그리고 맛있는 음식 대접...초청된 VIP들이 이민와서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다고, 정말 대접 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그들이 화요 여성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생명잔치로 여성예배의 일년 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화요여성예배를 통해 초청된 VIP는 화요예배에서 세례식이 거행되곤 하였던 시기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Esther Project에 초청받은 한 자매가 화요여성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며 당시 조다윗 목사님을 통해 예수영접모임의 시간을 갖고, 세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아침에 예수영접하기로 한 자매가 안 믿는 친구 한 자매를 데리고 와서 동시에 두명이 예수영접모임을 갖게 되고, 그 날로 두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

어났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말 처럼 친구따라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야 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두 분 중 한 분은 조다윗 목사님 교회에서, 한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요여성예배에서 시작된 VIP 초청잔치가 이제 전도위원회 사역으로 전 교회가 참여하는 일로 확산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화요여성예배는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주일 예배가 어색하고 생소하여 참석하기 어려운 여성들, 개인 사정으로 주일성수를 못하는 여성들, 믿지 않는 남편의 반대로 주일 예배를 못드리는 여성들, 이민자로 외로운 여성들, 친구를 만나고픈 여성들, 아이들 맡기고 맛있는 점심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여성들, 인생이 곤고하며 고민이 많은 여성들 누구든지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성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화요여성예배로 오세요~ 화요여성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성숙하게 하는 아래와 같은 소그룹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 | 김혜경 전도사

- 일대일 양육
- 커피브레이크
- 큐티사역
- 큐티나눔방
- 기도하는 엄마들
- 성경공부



일대일 양육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는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일대일로 만나, 16주 과정의 교재로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며 삶을 나누면서 주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성경공부입니다. 교회나 집, 도서관 등 장소와 시간선택을 둘의 사정에 맞춰 정할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힘든 기도제목도 친밀하게 나눌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시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체계적인 성경공부입니다. 매주 해당 말씀을 적으며 예습하고 핵심구절을 암송하고 또 큐티와 주일설교를 나누는 숙제를 하면서 성령하나님 함께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경험은 빼 놓을수 없는 기쁨입니다.

동반자과정을 마치고 양육자과정 수료후에 양육자로서 동반자를 만나 섬기며 양육자 자신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양육자로서 VIP를 만나 성경공부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도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성경학교에서는 박성호목사님께서 형제들을 위한 일대일 양육자과정을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 형제님들의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통한 교제와 영적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으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글 | 유예랑 (일대일 양육 팀장)



하나님께 순종하며 힘을 얻는 삶으로!

어렸을 적부터 믿는 엄마를 따라 교회에 다니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내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 믿는 친구들과 기도모임을 하기는 했었지만 '수능'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자유가 생기면서 저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주일마저 저 자신과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된 후로는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을 하였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 시간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미국에 방문한 여동생과 엄마의 권유로 임마누엘 교회를 알게 되었고 첫째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기도 모임에 우연히 함께 참여하면서 조금씩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제 발로 교회에 다시 걸어 나가기 시작하자 마음에 하루하루 큰 변화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부끄러워서 가족 앞에서 조차 울지 않던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과 눈물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모든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들과 기도모임을 하고 목장모임에 참여하면서 문득 제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왜곡되지 않은 복음을 온

전히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예배 소모임을 고르며 일대일 동반자 성경공부를 등록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아는 언니의 조언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만난 양육자님과 함께 한 16번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 지를 배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주 과제를 하고 양육자님과 공부할 때마다 그때에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받았습니다. 방언을 해 본 적 없는 것으로 내 신앙에 의심이 들었을 때 각 지체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말씀으로 붙들어주셨고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 중에 힘든 마음이 들었을 때, 주변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때에 기쁨보다 부담이 앞서서 뒤로 물러서고 싶은 상황에서 그것 또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공격이니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다시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마음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받은 이 가르침으로, 그리고 양육자님과 함께 읽은 말씀들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루하루 더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은지 2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변에 알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내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 | 이선영 (뉴랏 목장, 산호세 평원, 여성예배 운영팀)



커피브레이크



다음 중 커피브레이크 모임을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1) 부담없이 모여서 간단히 커피나 차를 마시며 시작
- 2)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직접 관찰하고 해석하며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함께 나눔
- 3) 여러 질문과 대화들을 통해서 귀납적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
- 4) 성경과 커피브레이크 교재를 사용함
- 5)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함

정답은...다들 눈치채고 계셨겠지만... 1-5번 모두다 입니다.

그 동안 화요여성예배 커피브레이크 모임은 참 다양한 분들과 함께 했는데 남편의 반대로 주일예배 대신 화요여성예배를 드리거나, 남편 혹은 자식과의 갈등때문에, 아이도 봐주고 점심도 준다고 해서, 처음 교회 와봤는데 성경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거나, 남편 종교 따라서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나, 여기 나오면 아들이 성공할 것 같다는 등등 여러 다양한 사연의 자매님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올해 커피브레이크 모임은 작년까지 4년 이상 꾸준히 함께 했던 멤버들이 여러 사정으로 못나오게 되면서 올해 한분을 제외하고는 다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특히 연령층이 많이 낮아져서 20-30대 젊은 엄마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봤거나, 초신자이거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자매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단독 인도자를 시작했

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적어도 한번은 성경에 대해 읽어봤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모임에 속해 있다가, 이번에 대부분 초신자들과 함께 하려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매님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모임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기본 정보가 있으면 공부하기가 수월한데, 모세가 누구인지, 여호수아가 사람이름인지 아니면 조슈아 트리의 그 트리 이름인지를 질문하는 분들도 계셨기에 신선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는게 쉽지 않았지만 자매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출애굽기, 신명기 등도 함께 찾아보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커피브레이크 모임 인도자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좋은 질문들을 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깊이 관찰하고 고민하여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 가를 직접 발견하고 믿게 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



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쉬운 질문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요여성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나온 자매들 중에 커피 마시는 모임인 줄 알고 가볍게 왔다가 같이 성경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차근 차근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모임을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자매들이 차츰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초신자인 자매 입에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반대하지만 자신은 미국에 와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 다니면서 설교듣고 모임하고 하다보니 성경을 더 읽고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얘기에 하나님께서 꼭 그 자매를 만나주시기를 더욱 더 기도로 중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4년 가까이 오래 같이 했던 커피브레이크 모임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속에서 몇년간 온갖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했고, 그 시간동안 자매님들의 행동과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화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했고, 그동안 함께 말씀 공부하고, 중보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실을 맺어서 그 모임을 졸업한 기분이려면, 이번 학기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실까 기대하며 새로운 모임에 입학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로 공부할 예정인데 더 많은 초신자들이 부담없이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어연경 (아릴락 목장)

거저 주신 달란트

안녕하세요 노효환입니다. 이번 학기 커피브레이크팀에서 여호수아서를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로서 어렵고 그리 기록하지 않았습니니다. 2장쯤 넘어갈 무렵, 기생 라합이 등장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찢림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행함이 있는 저라고 생각했었는데 기생라합처럼 저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행함이 있었는지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저 나 좋아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 명예, 성공을 주실거야' 라는 기복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세상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금 제 생활속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거저주신것들이 몇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시절 늘 사고만 치고 학교도 잘 나가지 않는 저를 두고 늘 기도하시던 저의 엄마의 눈물로 간호선교를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간호사! 또 맘머느리였던 엄마를 도와 어깨 너머로 익힌 요리솜씨! 마지막으로 넓은 오지랖으로 챙겨주고 퍼주는거 좋아하는 천성! 하나님께서 거저 저에게 주신 이 3가지로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엄마들을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육아도 공유하고 수다떨며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가자고" 해봐야 겠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을 더 많이 오픈하고 요리를 해서 나눠먹으며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아이엄마들이 많으니 이래저래 아이가 아플 때 마다 정보도 주고 주기적으로 안부연락도 주고받으니 더욱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얘기를 차츰 꺼냈고, 주일예배부터 오라고 하면 부담을 가질 것같아 '화요여성예배'부터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남편도 출근하고 어린 자녀와 있는 엄마들이 많았기에, "아이들을 맡아준다", "맛있는 점심도 준다" 하니 하나둘씩 화요여성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일예배도 섬기며 교인등록을 하고 목장 예배도 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가자는 말을 어느 타이밍에 하면 좋을지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떼어 말을 하니, 그 후부터는 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저 또한 제게 전도에 소질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차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 할 수 있을지를요. 그럼 분명 우리도 기생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 노효환 (산호세 평원, 베니 목장, 에녹 간호봉사팀)

큐티 사역

QT는 Q = Quiet, T = time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삶이 쉽지 않은 이유는 폭풍과 지진뒤에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큐티는 엘리야가 큰바람과 지진과 불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것 처럼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또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알게하시고, 또 그분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시간이지요. 말씀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 내 속사람이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 예배 안에는 한 개의 QT 세미나 방과 여러 개의 QT 나눔 방이 있습니다. QT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QT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거나 이미 QT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QT를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QT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의문들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큐티 하는데 참 어렵구나! 혹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QT 나눔 방으로 나오세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각자가 QT 했던 것들을 나눔으로 배가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글 | 최유진 (큐티 나눔방 팀장)

큐티 세미나를 듣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8

제가 이번 봄 학기 화요여성예배에서 큐티 세미나를 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큐티를 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며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큐티란 무엇인지도 모르고 책을 사서 그 날의 성경을 읽고 느낀 말씀을 하루의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때는 주위 분들이 큐티 책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왠지 말씀을 많이 보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책을 사서 읽고 독후감을 쓰듯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을 매일 날짜에 맞춰 치르는 형식처럼...

미국에 와서도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목장에서 해야 하니 형식적인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 처음 낯선 미국 땅에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또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고달픔 속에서 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는 애끓는 심정으로 울며 기도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방적인 나의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날 그날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간증을 들으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보니 화요여성예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10년이란 시간이 지나 작년 가을 학기와 올 봄 학기를 듣게 되었고, 형식적인 큐티에서 체계적인 큐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큐티 (Quiet Time) !!! ‘조용한 시간’
처음 세미나를 들어간 첫 날의 말씀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딱딱해진 나의 마음을 회개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상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느낌으로 읽으면 나를 깨우치는 말씀 혹은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글로써 대화 하고 그 대화를 통하여 내가 변화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큐티라고 알게 되었어요. 배우면서 내가 그 동안 건성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큐티를 했음을 알고 배운대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그동안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저의 일방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고 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만을 들으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던 저였음을 회개했습니다.

큐티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보여 달라고...그러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하박국 3:18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핸드폰에 직접 찍어서 보여주시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걸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만 저의 마음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믿고 의지하며 평안함으로 주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와 남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2주가 흐른 뒤 우리는 주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찬양할 때 춤추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춤추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배운대로 묵상하며 말씀의 달콤함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엔 저의 일방적인 믿음으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이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직은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는 날이 더 많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또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 교통하는 주님과 자녀가 되도록 묵상하며 귀기울여 주시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큐티세미나를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기울여 보세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글 | 정은주 (MK목장, 주일예배 중보 기도팀)

기도하는이유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 자체로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도 부족함이 없으신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일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무슨 일까지도 하시는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질서를 거부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꾀를 내어 자꾸만 악한 길로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끝

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나아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기쁨으로 영생을 살아가도록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말씀과 역사하심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노여워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주신 계명과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면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자유가 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통행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와 예배가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고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본질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에 인간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보십니다. 우리가 자신은 속일 수 있

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이때 가장 강렬한 기도는 엄마의 기도입니다. 엄마는 뱃속에 그리고 가슴에 생명을 품고 있다가 그렇게 한 몸이었던 자식을 고통을 통해 낳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아려 보듯이 엄마가 아이를 향한 마음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순전합니다. 그런 엄마가 아이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느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절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엄마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깊은 사랑과 애끓는 간절함은 하늘문을 열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맹목적이고 자식 사랑에 눈이 먼 엄마의 기도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귀기울여 주십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데에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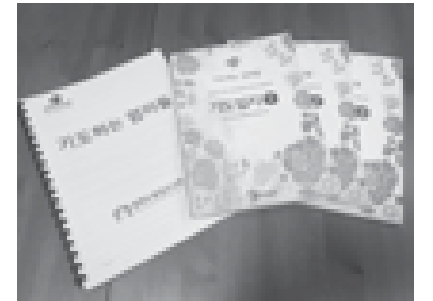
기도로 구할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공간적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된 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움직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빛날 때는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곧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하는 기도는 자신과 대상에게 유익하지만 함께 하는 기도는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 집니다. 함께 중보하는 기도는 서로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동을 일으켜 강력한 보호막이 되고 더없는 위로가 됩니다. 남의 일이고 나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면 중보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추상적인 언어의 유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말씀 그 자체를 기도로 바꾸어 드리는 것이 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화요여성예배와 목요 성경학교 오전에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기도 모임과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그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고백-감사-중보의 네 단계에 맞추어 소그룹 합심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내 가정에서 나아가 이웃, 학교, 사회,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글 | 박주현 (여성 예배 '기도하는 엄마들' 팀 리더)





말씀을 나누며 삶이 풍성해지는 시간

화요 여성 예배가 카이로스(하나님의 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2년간 꾸준히 나오는 나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으로 지으심에 감사하고 여성이기에 자녀를 낳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다 커서 내 동지를 떠나더라도 열방의 자녀를 품고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예배의 축제를 누리며 출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소그룹은 박성호 목사님께서 여성 예배를 섬기시면서 새로 도입된 소그룹입니다. 학기마다 주제가 있는 소책자가 정해지면 매주 단원별로 성경을 읽으며 문제에 답을 찾아서 미리 적어 갑니다. 화요여성예배에 오면 그 단원에 해당하는 설교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면 정해진 소그룹으로 모여서 3~5명 정도가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미리 예습해 온 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답하다보면, 각자 말씀에 비취 나의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풍성함이 더해집니다. 설교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기도 하고 일상에서 있던 경험을 나눌 때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아고보시면 아고보셔, 전도면 전도에 꼭 빠지게 되지요.

아고보서를 통해 행함도 믿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순종, 행함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찾기와 설교 그리고 나눔, 이 세 박자는 첫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둘째, 설교를 통해 재확인하는 과정과 셋째, 나눔을 통해 말씀이 풍성해지고 깊이 들어가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매력 있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누구든지 오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친히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진리이신 주님 말씀 앞에 다른 지체들의 다양한 생각과 체험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새로운 식구가 늘면 교제와 증보기도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지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나의 낮은 모습을 드러내며 만나도 또 만나고 나누고 싶은 설렘이 있는 곳입니다.

글 | 편집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기에

안녕하세요. 전윤영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9일, 산호세에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은 처음입니다. 12월 29일 토요일에 미국 땅을 밟았고 30일 주일에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에서 방송기자인데, 6개월 미국 연수 기회가 있어 저는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집과 전임자에게서 인수 받은 차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 낯선 곳에서 가족 처럼 돌봐주시며 힘이 돼주시는 목장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곳에서 기적적인 산호세 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저는 2살 반 딸 아이, 남편과 함께 하는 매일의 24시간이 어려웠습니다. 삼시세끼에 뭔가를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 끊임없는 설거지, 가만히 있어도 쌓이는 집안 먼지 등...이런 것 때문에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내가 엄마가 맞나, 아내의 자격이 있나? 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요여성예배가 있으니 소그룹을 신청하여 나와보라는 부목자님 말씀에 일단 '네'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제 마음 속에 망설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한국에서도 갈 수 있는데, 성경공부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데, 매주 화요일 오전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맞나?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에 시간도 부족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몇 주간의 생활을 통해 아이가 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사랑이 너무 메말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화요여성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여성예배에서 소속된 소그룹의 주제는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단어는 저와 멀어진 구닥다리같은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지상명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겠지만 당장 안 해도 별로 죄책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의 주변에는 불신자도 없었습니다. 양가 가족, 회사동료, 친구들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와 완전히 떨어져 살아도 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니다. 제 모습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그룹 교재 첫 번째 제목이 <왜 복음을 전하는가> 였고,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비추어 전도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니다. 전도는 크리스천이 언젠가는 해야하는 의무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극한 사랑에 깊이 감사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이 집안에 아버지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있는 것 처럼 저도 겉보기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만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니다.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큰 사랑을 깨닫게 하였고, 함께 있는 남편과 아이의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정확한 시점에 제가 가족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과 더욱 친밀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남편과 저는 각자의 회사에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야근과 주말근무도 많았습니다. 저는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아이를 돌보고, 밀린 집안 일을 하고 나면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에는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주로 카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기간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에 대해, 우리 가정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나눌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록 우리 가정은 감사한 것 밖에 없다는 고백만 하게 됐습니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제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 간구하는 기도 아닌 감사를 감사로 고백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하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번 여성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섬겨주시는 손길들, 소그룹을 인도해 주신 리더님, 그리고 소그룹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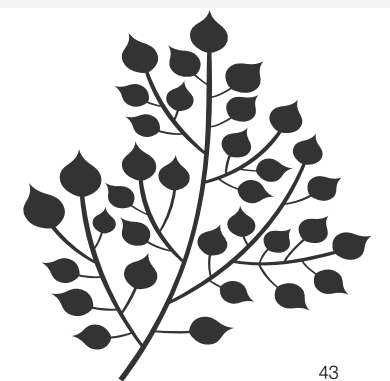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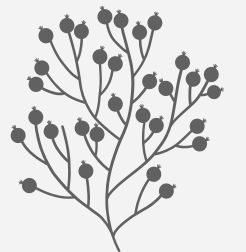
지난 주에 소그룹 마지막 챕터를 예습하는데, 한국에 있는 다섯가정의 엄마/아빠/아이의 이름까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니다. 모두 저희와 친밀한 가족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몇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정치 소식을 걸들여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던 친한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지 너무도 열심히 토론했던 친구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VIP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매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

정으로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했던 저희 경솔함이 부끄럽지만, 씨를 뿌려야 하는 대상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5살쯤에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새벽예배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목사님께서서는 제 장래희망이 '기자' 인것에 대해 잘 알고 계셨지만, 그날은 기도 전에 저의 꿈이 무엇이나고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특파원이 돼 민간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20여년이 흘렀고, 신기하게도 제가 특파원은 아니지만, 기자인 남편을 만나서 '특파원비자'를 받고 미국땅을 밟았습니다.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선교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였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6월말이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소그룹 리더님께서 한국으로 재파송하는 거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곳에서 부여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제 삶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평범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처럼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삶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여성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참석할 수 없어 너무 아쉽지만, 여성예배와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명한 아내, 강건한 엄마, 성숙한 여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글 | 전윤영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 15:20)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이다. 남루한 차림으로 힘없이 걸어오는 자녀를 멀리서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껴안는다. 아버지의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았고, 나의 가슴에도 온전히 남아있으며, 자녀를 통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자녀를 향한 이 무한한 사랑이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리라 믿는다.

상황1: 실리콘밸리에서 첨단 반도체를 설계하고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 세상을 바꾸어 가는 사람과 가정에서 권위를 상실한 무력한 아버지가 동일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선부른 간섭이 최신 정보로 무장된 엄마의 자녀양육에 방해가 된다.

상황 2: 십대 자녀를 키워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자녀양육은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는 것처럼 예측할 수가 없다. 아무리 작은 차를 운전해도 면허가 필요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자녀양육은 면허없이도 한다.

전자는 불편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데이터이고, 후자는 자녀양육의 모순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이 분발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한다. 불편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소그룹 모임”이다. 2014년 봄에 시작해서 올해로 여섯번째 모임을 마쳤다. 매년 3

월 첫 주에 시작해서 두달간 토요일 오전에 모여 공부를 한다. 아버지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착한아이’였던 자녀가 아버지의 모순된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 때 아버지의 절대권력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다. 30년간 친숙했던 과거의 모델을 버리고 변화를 택해야 하는 시기이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기본을 이해하는 훈련에도 적기가 있다. 첫 아이가 5학년되는 봄학기 3월이다. 중학교 입학을 반년 앞둔, 그래서 가정에 거룩한 긴장이 감도는 그 때가 바로 아버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듯이... 자녀가 5학년이 되는 아버지들을 위해 이 모임이 준비되어 있다. 서둘 필요는 없지만 미루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이 모임은 교회 밖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들에게도 열려 있다.



자녀의 중고등학교 7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를 신앙의 문제와 진학의 문제로 단순화시켜 볼 수도 있다. 이 모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7년 과정을 미리 답사하기 위해, 매년 나이에 맞는 한가지씩 주제를 선정하였다. 아래 세가지 주제를 포함해서...

1. 아버지의 자녀양육은 자녀의 다름을 발견하면서 출발한다. 나의 자녀에게는 넘치는 다름도 있고 모자라는 다름도 있다. 모든 다름이 창조에서 출발했음을 인정할 때 아버지의 눈에 자녀의 ‘새로운’ 달란트가 보인다.
 2. 아버지가 발견하지 못한 자녀의 가치를 대학 심사관이 발견하기는 힘들다. 시인의 가슴으로 자녀를 바라 볼 때 창조주가 숨겨둔 보물이 보인다.
 3. 자녀는 18세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된다.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나의 분신이 아니라 나를 떠나갈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자유함을 얻는다.
- 지난 3월에 VIP 세분을 포함해서 열분의 아버지들과 함께 제6기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 토요일 아침에 모여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배운 것을 나누고, 자녀와 함께 숙제를 하면

서, 자녀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가정사역부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였고, 지각없는 100% 출석이 가능함도 보였다. 냉담자였던 VIP는 교회 출석을 시작하였고, 또 다른 VIP는 목장출석을 하면서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 미국 교회에 출석하는 한 아버지는 사용된 교재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영어권 아버지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젊은 아버지들은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문제는 미리 공부하고,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지혜를 성경에서 찾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리라 믿는다.

2020년 3월에 일곱번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모임을 통해 믿는 아버지들의 지혜가 깊어지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통해 창조의 비밀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리라 믿는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믿는 만큼 성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창조의 질서를 실천하는 최전방의 전사이기 때문에...

글 | 김영곤 목사 (모로코 목장)



임마누엘 어와나 (AWANA)

AWANA는 Awaked Workmen Are Not Ashamed의 의미로 딘후 2:15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삼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훈련되어가도록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7년에 어와나를 시작하였고 많은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암송과, 큐티와, 게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Awana를 간단히 소개하면 preschool 나이 아이들로 구성된 Cubbies, Kinder부터 2학년 아이들로 구성된 Sparky, 3학년부터 5학년 아이들로 구성된 T&T 그룹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30-9:00에 찬양과 예배, Handbook시간, 게임 시간으로 나뉘어져 진행이 됩니다.

Awana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wana 사역의 첫번째 원리이자, 전부로 Awana의 모든 과정은 복음중심 Gospel-centered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성경암송을 들 수 있습니다. Awana는 아이들이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의미를 분별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은 핸드북을 통하여 매년 약 50-100 개의 성경구절을 암송합니다. 세번째는 방법론으로 Fun & Exciting 의 접근 방법도 아이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임 시간 뿐만 아니라 모든 클럽 활동 시간 동안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합니다. 네번째로는 Training to Serve Jesus Christ Steadily 으로 Awana의 원리이자, 목표입니다. Awana 는 클럽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다섯번째로는 Strong Leadership Development 입니다. 강한 리더십 훈련을 통해 Awana 클럽의 교사들이 성장하는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 클럽원들도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wana를 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Sparky 리더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통해서도 저도 배우고 함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매년 어와나 시작 초반에는 영어가 아직 어려운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즐겁게 John 3:16 을 시작으로 말씀 암송 구절을 열심히 해 옵니다. 그리고 한 두 달이 지나면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 저 오늘 3 구절이상 외웠어요.' 하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이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덕분에 저도 같이 말씀 암송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이들이 매 주 하는 handbook 안에 믿지 않는 친구들의 초대하는 숙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Awana 가 참 좋다고 너도 함께 해 보지 않을까? 권면하는 아이들 모습에 말씀

을 전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믿지 않는 아이들이 초대된 주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와나를 기뻐하며 오고 그 후엔 매 주 교회에 오게 된 어린 친구도 있습니다.

또 Handbook 시간에 각 목장에서 섬기거나 가정이 섬기는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는데 선교사가 될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던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지역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스물 그룹 친구들과도 쉼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분들을 통해 일하시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묻고 대답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를 섬기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드러낼 기회가 많다는 것 또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늘 핸드북 시간에 말씀 암송을 먼저 한 아이들이 아직 하지 못한 친구들을 돕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일년을 review하는 시간에 Preschooler 들이 함께 하는 Cubbies 리더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리다고 생각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 시간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잘 할 수 있게 있는 힘껏 소리쳐주며 응원합니다. 게임에 이겨도 이기지 못해도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힘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로 훈련되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자녀를 두신 많은 분들이 Awana에 관심 가져주시고 자녀를 매해 가을 등록시켜주시고 리더로도 많이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바람도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글 | 김민숙B (무어 목장, AWANA 부장)



Cubbies



Sparky



T&T (Truth & Training)

놀라운 비밀들

따스한 햇별이
슬픈마음 녹이고
수없이 다른 모습의 구름들이
외로움 신고 떠나네

산들바람 찾아와
걱정근심 안고 사라지고

높은 산들 변함없는 주님사랑 보여주네
동산에서 풀뜯는 양과 소들
내맘에 평안을 안겨주고
해질녘 저녁노을 그 황홀한 모습
천국을 사모하게 하네

주님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이
옛적부터 거기 있었을텐데
황혼이된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네

- 임광순 (밀알 목장)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다.

- 조이 도우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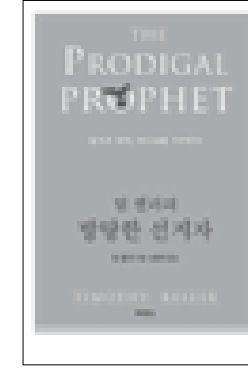
임마누엘 도서실 신간서적



놀라움과 경외의 나날들

마커스 J 보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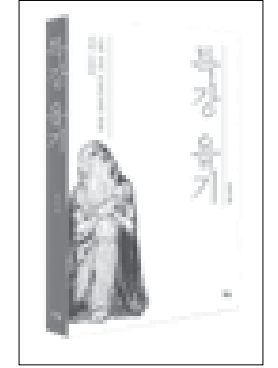
21세기에 충실히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



방탕한 선지자

팀 켈러

설교의 대가 팀 켈러가 전해 주는 우리가 몰랐던 요나서의 깊은 이야기



특강 욥기

권지성

욥기에 대한 통찰력 있는 안목과 다른 성경과의 관계를 잘 알려주는 책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마커스 J 보그

그리스도교 언어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님께서 이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고계셨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풀이하고 있는 책



거짓의 사람들

스캇 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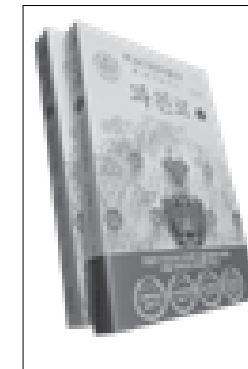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인 "악"에 대해 정면으로 파고든 책



Welcome to Adventures in Odyssey!

Audio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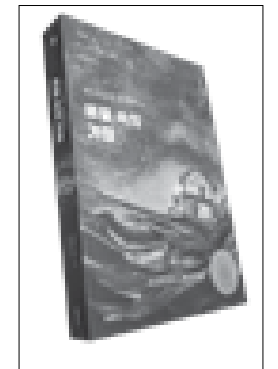
Explore the childhood escapades of John Avery Whittaker the most beloved character in the town of Odyssey.



파친코 1, 2

이민진

차별받는 이민자의 투쟁적 삶을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80년을 그려낸 제일 한국인의 가슴 아픈 역사



폭풍 속의 가정

러셀 무어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 가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

자료 제공 | 도서부
사진 출처 | godpeople.com

성령권능
성탄절
사행시

성경적 가치관과
령(영)적인 강건함을 소유한 자에게는
권능의 이름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절사랑하시니 행복합니다

김정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께 신
령(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권사님들, 많은 분을 섬기도록
능력 받은 예배자가 됩시다!

성스러운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드리자

정구옥

성령님은
령(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권세와 위엄으로
능히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힘을 주
십니다

성스러운 단 하나의 날
탄생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절대 불변의 진리 우리의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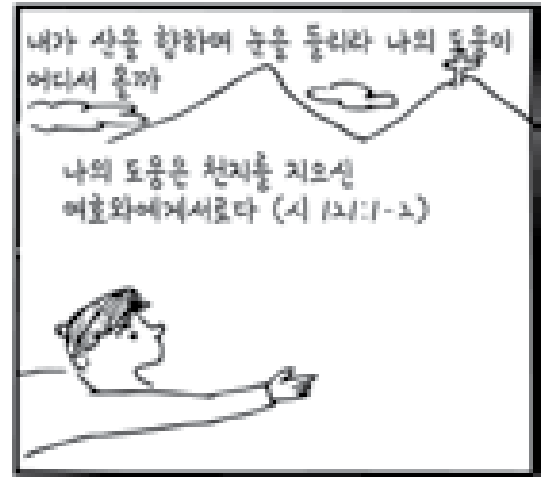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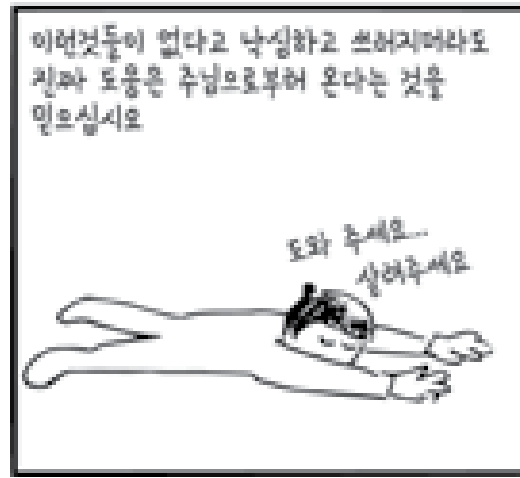
김한경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셔서
령(영)원히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
게 하시네

권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
하세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탄탄한 믿음의 근육을 키워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리 예수
님을 바라보며 ...

김경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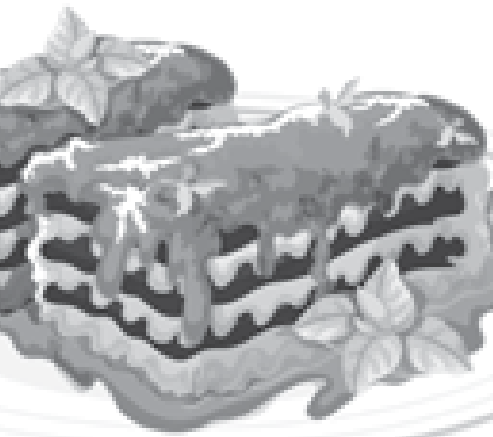


글·그림 | 임명진 (호산나 찬양대)

따뜻한 마음을 채우는 가지 라자니아

가지 라자니아 (9인분)

재료: 가지 2개, 다진 소고기 300g, 소세지 300g, 다진 양파 1개, 다진 마늘 1ts, 파슬리 1Tbsp, 라자니아면 8oz, 토마토 페이스트 120g, 물 2컵, oregano 1/2 Tbsp, 계란 2개, 리코타 치즈 15oz, 모짜렐라 치즈 220g, 파마산 치즈 1/4컵 (토마토 페이스트와 물을 대신해서 파스타 소스로 대체 가능 합니다)



즐거운 모임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목장 모임이나 크리스마스 등 여러가지 모양의 모임으로 섬길 때 음식 때문에 고민하실 성도님께 제가 속한 목장의 부목자님께서 만들어 주신 라자니아 레시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중에 판매하는 라자니아만 먹어 본 저에게는 라자니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븐에서 갓 나온 수제 라자니아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라자니아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세계 10대 수퍼푸드로 비타민, 무기질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토마토는 물론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와 계란, 그리고 평소에는 쉽게 먹지 않는 가지가 들어가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가지 라자니아입니다.

추운 겨울, 오븐에서 막 나온 따뜻한 속을 채운 가지 라자니아와 함께 풍성한 모임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흘러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1. 가지를 길이대로 잘라서 후라이팬에 수분을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앞뒤로 구워줍니다.
2. 크고 두꺼운 냄비에 기름 1T를 넣고 고기, 소세지, 양파, 마늘, 파슬리를 넣고 고기색이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3.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 물, 소금, 후추, oregano를 넣고 30~40분간 약한 불에서 끓입니다.
4. 소스가 끓여지는 동안 국수를 삶아서 찬물로 헹군 다음 물기를 빼주세요.
5. 계란 2개와 리코타 치즈를 잘 섞어서 화이트 소스를 만들어 놓으세요.
6. 옴푹한 베이킹팬에 구운가지, 토마토 소스 1/2 컵, 화이트 소스, 라자니아면, 모짜렐라 치즈 순서로 얹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7. 제일 위에 파마산 치즈를 뿌린 후 화씨 375도에서 20분 동안 치즈가 노릇하게 될 때까지 굽습니다.

글 | 형세련 (편집부)

‘마음을 만지다, 산호세 3기 청소년 감동캠프’

9월 28일 가정사역부 주관으로 Youth Connect 2019 청소년 감동캠프가 열려 24가정의 유스 청소년과 부모님이 즐겁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처음 개설된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소년 감동캠프는 지난 2017년 미주에 아웃리치로 시작되어, 영어 문화권에 있는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 컨텐츠와 진행을 현지화하여 지난 2018년도에 미주 4기, 산호세 2기에 이어 올해 미주 5기, 산호세 3기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개설되었습니다. 부모 강사로 박성호 목사님, 자녀 강사로 문데이빗 목사님, 그리고 진행 강사로 김우정 집사님이 헌신하여 어울리기, 바로알기, 마음열기, 체험하기, 그리고 다짐하기의 다섯가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역이 앞으로 두란노아버지학교 Youth Connect 청소년 감동캠프가 미주 전역에 확산하는데, 소중한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영기 목사님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2017년 8월부터 동부평원 지역봉사 사역으로 섬겨주신 이영기 목사님이 형제교회인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실리콘밸리 장로 교회에서 열린 임직식에 임마누엘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참석하여 목사님 내외분을 통해 실리콘밸리 장로 교회에 더욱 크고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축원해주셨습니다.



‘2019 부흥회 및 VIP 초청잔치, 조정민 목사님 초청’

11/1(금)부터 11/3(토)까지 Why Jesus 저자이며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 기자, iMBC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베이직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을 모시고 2019년 가을 부흥회와 VIP 초청잔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집회 기간동안 왜 성경인가? 왜 교회인가? 왜 성령인가? 왜 제자인가? 등 Why 시리즈 설교를 통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셨고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전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65명의 VIP분들과 인도자들이 함께 하는 VIP 초청잔치가 열렸는데, 찬양과 간증, "왜 예수인가?"(요3:16~18)라는 주제로 VIP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결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맛있는 음식까지 더해진 풍성한 천국잔치였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터키 선교를 위한 자선 음악회 Piano Talk, Hymn’

임마누엘 교회의 선교지역 지원을 위한 움직임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가을 저녁 임마누엘 교회 대강당에서 어울려졌습니다. 2부 찬양대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선혜원 집사님과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제갈소망님이 함께하는 "Piano Talk, Hymn"이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그동안 터키의 교회를 개척해서 안정을 이루어 다른 선교사님께 의탁하고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는 사역과 양미정 사모님의 유방암 치료를 위한 자선 기금 모금을 위한 이 공연에는 임마누엘 교회 여성중창단과 남성중창단도 함께 하여 선교지의 죽어가는 생명과 현실적으로 몸이 아픈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임마누엘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임마누엘 어린이 합창단’

Hop to God (어린이 합창단)와 함께하는 "약속" 성탄 감사 음악예배를 12월8일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나바호에서 코딩스쿨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 섬기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나바호 코딩스쿨을 후원 하였습니다.
 나바호 코딩스쿨에는 딱 저희 합창단 아이들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많기에 더욱더 의미있었던 예배였습니다.
 55명의 아이들이 찬양, 수화, 댄스, 부채춤, 사물놀이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 모여진 많은분들이 손길이 나바호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길, 나바호 아이들이 주님을 조금씩 배워나가며 따뜻한 미래의 주님의 아이들로 성장할수있길, 우리 아이들의 올린 찬양처럼 나바호 어린이들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퍼지는 날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연주회’

12월 1일 오후 교회 본당에서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53명의 단원들이 참가하였고, 이날 크리스마스 연주회를 통해 모은 헌금으로 '샌프란시스코 홀리스 잠바나누기' 행사에 2000불 도네이션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바람과 비와 외로움으로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본 받아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오케스트라가 되길 소망하며,
 따뜻한 잠바나누기 행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하심이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입혀지길 기도합니다.



축구 꿈나무였던 이민소년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까지

- 유년부 Sean Kim 전도사

“오늘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지키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언약, 레인보우, 언약, 레인보우...”

부모님들에게 오늘 아이들이 배운 말씀을 설명하며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제안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장년부 예배의 말씀에 이어 또 다른 말씀의 축복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유스부에서 인턴으로 그림자처럼 섬기며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영어 연합 예배에서 기타치며 찬양을 인도하던 그 전도사’로 알려진 분, 장난끼 가득한 친구같은 삼촌의 모습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단호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아이들의 눈과 귀를 여는 유년부 Sean Kim (김성신) 전도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Q.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8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몇 차례 안좋은 경험을 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축구에 대한 은사를 주셨고 그로 인해 정말 열심히 즐겁게 운동했고 축구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무릎 부상으로 인해 축구를 포기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 계획도 바뀌어야 하는 인생의 고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일을 하며 살던 중 축구를 하며 알게된 분의 권유로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던 중 SFC (Student for Christ) 수련회 참석한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고 저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접기도 후에도 세상이나 저의 마음이나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수련회 마지막날 저녁에 주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맛보게 하였고 그 평안은 그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오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Q. 임마누엘 교회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시 축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축구를 통해 대학교 진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찬양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과 어른들의 권유로 신학교로 마음을 옮기게 되었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축구 모임에서 만나게 된 김승균 목사님과 인연으로 우리 임마누엘 장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풀타임으로 회사의 Project Manager를 하며 유스부의 인턴으로 섬기던 중, 유스 안의 인리치 팀 아이들과 수요일 DT(제자훈련 팀)을 섬기게 되었고 올 해 가을부터는 하나님의 뜻으로 유년부 전도사로 어린 씨앗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라며

Q.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교역자로서 은혜가 있었던 사건이 있다면요?

유스부를 섬길 때, 토요일에 모이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하나로 주보를 만들고 새로운 아이들을 환영하는 사역을 하는 인리치 팀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가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청소년기는 부모님들께서 참 어려워하는 연령기인데, 그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말할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의 입을 열기 이전에 마음을 어떻게 열어줘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친구같은 사람이 되어야 아이들의 마음과 입을 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을 내려놓는 대신 친구가 되어보니 부모님에게 못 나누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에 아! 할 때가 있기도 해요. 제가 여자친구랑 싸우고 너무 괴로운 마음을 얘기 했을 때, 한 아이가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설교 뿐 아니라 평소에 나누는 이야기들 까지도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임을 인리치 팀을 섬기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Q. 유년부는 유치부와 초등부 사이에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과도기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년부 사역에서 특히 힘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요?

유년시기는 유치부 시절에 비해 머리가 자라서 바운더리의 개념이 생기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허락받지 않은) 행동을 지금은 이정도까지는 잠깐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줄다리기를 할 줄 아는 나이인거죠. 제가 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지?’, ‘예배 시간에는 왜 하던 것을 멈추고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요. 평소에는 너무나 즐거운 장난 상대일 수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아주 엄격하고 진지한 전도사가 되는거죠. 예배시간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은 순종과 존경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배웠으면 합니다.

Q. 어린이 사역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오는 분들 중,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는 한인 커뮤니티나 교제를 위해 오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게되었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런 기회가 부족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 그렇게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른 다섯까지는 유스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스 사역은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아니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셔야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써 아이들이 변화되고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보람됩니다.

특히 유년부 아이들은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를 만들어 주기에 아주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가 만만치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선명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훈련은, 제가 향후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목회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목회 비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런 저런 사역을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지금 배우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업을 마쳐 마무리하면서 비전을 더 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reach the Gospel!"

Q. 유년부에서도 직접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신 적이 있으신데, 찬양 사역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찬양의 매력은 멜로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율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찬양의 가사를 읽고 보고 듣고 고백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동보다 가사를 보고 찬양드리기 원했습니다.

Q.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란"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해주실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신실하시며 사랑에 변함이 없



으며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지요. 아이들 눈에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 뒤에 서서 때로는 우리 앞에서 방패막이 되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은혜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며

Q. 사역이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나 회의가 들 때, 이를 극복하는 믿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나눠 주세요.

힘든 일 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저를 누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무리 현실의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어도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모든 일을 주님의 축복이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니 한발짝씩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온 공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한번에 무너뜨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욕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선한 영향을 주시는 믿음의 동반자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단추를 끼워준 Robert가 생각나고, 임마누엘 교회에 몸담을 수 있었던 동기를 주신 김승균 목사님은 제가 이 곳에서 처음 유스 아이들을 만나 너무 말을 안들어서 힘들어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세요. 듣기 불편할 정도로 너무 맞는 소리를 해서 다들 도망치는 제 여자친구도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사역부서를 옮길 때 마다 아이들 걱정을 하는 제게 "아이를 케어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응원을 주는 제 믿음의 선배인 여동생, 그리고 지금 유년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린 저를 존중하며 도움 주시는 송호영 전도사님도 제 믿음의 동반자 이십니다.

Q.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현재는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잠시 쉬고 있지만 주말마다 축구를 해왔고요, 지금은 사역자로서의 성장을 위해 온라인 클래스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책을 읽거나 주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제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선킴 전도사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힘과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유년시절의 이민과 운동 생활, 부상으로 인한 세상적인 실패의 순간들, 그리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져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주어진 곳에서 맡겨진 일을 피부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전도사님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도사님의 소망으로 일구어 나갈 밭에서 자라나는 임마누엘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더 단단하게 싹트기를 기도합니다.

조용히 거듭남의 기적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을 향한 제사가 있었고, 외할머님은 늘 절에 드나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신념에 사셨으며, 명예와 학벌을 중시하며 남아 선호사상이 철저했습니다. 순종적이고 병약하셨던 어머니는 언니, 오빠들의 입시나 우리들이 아프면 막연히 하늘을 우러러 비시는 분이셨습니다. 위로 첫째딸이어서 귀한 언니, 왕자처럼 군림하던 유일한 아들인 오빠, 아래로 세살 터울인 귀여운 막내 동생이 있었고, 둘째 딸에 셋째인 나는 별로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리라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아들이 최우선인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철이 들면서 스스로 할 일들을 잘 챙기고 독립적이며 부모님을 속 썩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외할머니를 따라 절에도 가고, 동네 꼬마들과 교회도 소풍 다니듯 다녔습니다. 그 당시 이미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사랑, 회개, 거룩 등.. 이런 단어들 뜻도 모르지만 제 머리속에 세뇌되었습니다. 네 형제 자매중 유독 저만 교회에 나갔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감수성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인 중학생 때 늘 병약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마음으로 처한 충격과 슬픔 속에 사람은 왜 아프고 죽어야 하며, 또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많은 의문에 갇혀 갈등하며, 염세적 생각에 처해 있던 저는, 신앙심 깊은 친구의 인도로 천주교로 인도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교리문답과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시험치루 듯이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여러가지 삶의 어려운 현실들이 회오리처럼 닥쳐왔을 때 이겨나가기 힘들고 정신적으로 의지 할 곳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듭남”이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고, 때로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제도속에서 자유함이 없고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는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리라 스스로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7년 미국으로 이민을 오며 천주교 영세를 인정하는 개신교의 장로교회에 출석했고, 2015년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손원배 목사님께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게는 드라마틱한 영적체험이나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개신교 신앙생활의 예배 속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역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때로는 삶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소리없이 다가오신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 나했고, 2015년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손원배 목사님께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게는 드라마틱한 영적체험이나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개신교 신앙생활의 예배 속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역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때로는 삶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소리없이 다가오신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 나의 심령 깊숙히 내 자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속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은 목적이 없는 삶을 서서히 깨닫고 삶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 조용히 거듭남의 기적이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보슬비에 몸이 조금씩 적셔지듯 그렇게 나의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 갔으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역의 자리들을 떠나지 않으려 노력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조건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재하신 그리스도 영! 그 영에 나를 맡기고 인도되어 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의 고비고비가 늘 있겠지만, 육신이 있는 동안 내 삶의 분명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 위해 또 그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늘 빛진자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도 나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가정에서의 위치, 어린시절 한 믿음의 친구로 인해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 되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을 구하고, 그의 뜻을 펼치심을 압니다. 제 신앙의 여정 속에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극적인 삶에서 좀더 벗어나서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글 | 임영희 부목자 (단동목장)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 한 두어번 동네에 있는 교회에 친구들과 놀러갔던 기억도 있는 듯 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 친척분들, 시댁 식구들 모두가 불교신자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종교중 하나로만 여겨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알고지도 하지 않은채, 저의 삶의 목표를 세상적인 행복에 맞추어 말 그대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온지는 10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 알게 되었던 언니를 통해 중간중간 교회 행사가 있을때마다 언니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해 한번씩 방문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다시 언니의 권유로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것을 제안받았고, 그것이 뭔지도 모른채 그 권유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는 설레임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기도도 매일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외우고, 큐티도 하면서 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날의 저의 죄를 알게되고,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기도할때 눈물이 나고 그러고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말해주었고, 제게 내미는 남편의 손을 잡고 미숙하지만 기도도 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지 다섯번째 만남이 있던 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 동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을 묻는 10가지 질문 중에 당신이 오늘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염치가 없었고, 송구스럽고, 감히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니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눈이 너무 아팠는데 라식 수술 후 괜찮았던 왼쪽 눈에 문제가 생겨, 공부하는 4주 내내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도저히 공부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했고 한달동안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항생제만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이 있는지 숙제도 할 수 있었고, 말씀도 외우고, 그 와중에 알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나간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걸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픈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와야겠다는 생각과 결심을 했고 그날 저녁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모르고 지내왔던 악의 세력에 더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와 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의사가 눈 검사를 한뒤 예정에도 없던 수술을 권유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을 한뒤, 당일날 씻은듯이 회복되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계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싶고, 그런 변화된 나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 가족들과 시댁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자녀로 다시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글 | 정영진



예수님만 섬기고 싶은 우리 가정을 소개합니다

친가, 외가 모두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와, 외가로부터 3대째 믿음을 이어오는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대학생과 고등학교인 아들, 딸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늘 신나고 재밌고 좋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학교와 친구들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돌아보니 대학생활의 자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더 좁은 문으로 느끼도록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하였지만 서로 다른 두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다시 한 세대를 향한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 믿음의 유업을 잇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냈던 시절을 아이들은 이 미국 땅에서 더 열린 문화권으로 접하며 자라난다는 사실이 제게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을 가야하는 것인지를 알기에 아이들을 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종교를 섬기는 것인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강력하게 인도하는 분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력이 길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미로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가족을 보혈로 덮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이끌어가기 위해 직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이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매우 명확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상황들을 맞이하며, 아들이 달라는 대로가 아닌 무엇을 구해야하는지를 철저히 가르쳐주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때론 좋은 길, 편한 길, 예쁜 길을 걷고 싶은 죄성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앉습니다.

제게는 꼬마인 우리 가정의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 또한 감사하게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좁고 험악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면 대신 싸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도록 참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직 10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한 성품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고 명철하게 분별하며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이 좁은 길을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신칭이라 하시고 구원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온 가족이 함께 사랑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 진다는 것을 이웃과 더 많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고 배우는 과정이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글 | 이영은 부목자 (브라질 목장, 호산나 찬양대)



기도와 응답이 끊이지 않는 요르단 목장

요르단 목장을 섬기는 서윤원 목사 정구옥 부목자입니다. 우리 가족은 2005년 말에 산호세에 오게 되었고, 임마누엘교회를 소개 받았습니다. 새가족부의 교육을 마치고 소개 받은 목장은 전광수 장로님 목장이었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와 삶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목장에서 분가하여 목장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시작된 요르단 목장은 내년 3월에 만 14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가 후, 목장에는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기타 반주와 함께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고, 목원분들께서 선교 담당을 포함한 사역일을 함께 나누어 섬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삶을 나누고, 모든 가정이 밖으로 나아가 전도에도 힘써주시니, 많은 VIP가 목장에 오셨습니다. 자물 사역기간에는 함께 여행을 하며, 또 여름에는 공원에서 바베큐와 운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 '도움을 주는자' 인 자매님들과는 주중에 여성 예배와 큐티나눔을 통해, 점점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이 목장에 나오게 되고 세례 받으며, 점차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목장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많은 가정의 기도 제목이 영주권 취득이었습니다. 또한, 취직과 이직에 대한 기도도 함께 했고 성령은 은혜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목자인 우리 가정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온 후 영주권문제, 결혼한 큰 아들의 취직과 자녀 출산, 목자님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새 직장을 찾는 일 등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목원들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새 직장을 찾으며, 또는 영주권을 기다리며, 너무 긴 터널같은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되었고,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한 가정이 아기를 조산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 목원들이 다 함께 기도하며,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을 조리며 검사결과를 기다렸고, 아기의 눈과 폐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와 기뻐하던 일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들에게 끊이지 않았던 어려운 기도제목은 모두 후에 감사와 기쁨과 눈물이 되었습니다.

저희부부가 미국에 온 지 석달 후, 유학 중 미국에서 낳은 동성이가 만 21살이 되어서, 순적하게 영주권을 받게 되고,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했는데 허락해 주셨고, 큰 아들의 아기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첫 아기를 시험관 아기로 주시고, 둘째를 자연 임신으로 주셔서 이제 손자는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손녀는 지금 5살이 되었습니다. 29주만에 태어난 목원 가정의 아기도 어느새 건강한 9살의 소년이 되고, 많은 주재원 가정이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한국으로 가시고, 많은 가정이 이곳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셔서, 목사 모임에 함께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서 대학교에 입학한 청년이 된 목원가정의 아이들, 선교 간증하는 모습도 대견합니다.

우리 목장의 가정들에게 끊이 없는 어려운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한가지씩 응답 받는 길이 모두 감사

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염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려 하심이라고 믿으며 두려워 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직장생활로 바쁘게 지내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주님은 우리 가정을 목자로 불러 주셔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목원들과 전도하며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 진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다가 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2-14)

글 | 정구옥 부목자 (요르단 목장)



계간지 '임마누엘'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항목에 교우를 추천하거나 원고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해당 항목에 표를 해주세요. 추천된 목장이나 가정예배는 편집부의 취재 및 인터뷰 혹은 원고 기고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목장 이야기 - 목장 예배를 소개합니다. ()
2. 가정예배 -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가정예배를 소개합니다. ()
3. 에녹과의 만남 - 노부모님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편집부에서 인터뷰합니다. ()
4. 친구 소개장 - 임마누엘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
5. 임마누엘 레시피 - 가족 건강식 또는 목장의 대표 요리를 함께 나눕니다. ()
6. 개인 간증문 ()
7. 시, 수필 ()
8. 자유 기고 ()

추천인/참여를 원하는 분의 성함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추천하시는 목장 및 교우 _____

'임마누엘'지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로 엮어집니다.

임마누엘 40주년 기념 추억의 사진전 사진 수집

임마누엘이 40주년을 맞는 2020년을 맞아 '추억의 사진전'을 열고자 합니다.

1979년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와 성도님들의 인생과 추억이 담긴 사진과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 숨쉬 세월을 담은 한 장의 사진들이 모여서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만들어 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집 내용: 1979년 ~2020년 5월까지 사진과
 설명 10줄

제출 기한: 2020년 5월 31일

제출처: kepceditorial@googlegroups.com
 또는 사진 수집함

임마누엘의 행복한 사람들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집인] 황의철

[기획] 장은영

[편집 및 번역] 김연희 동원봉 윤혜석 한연선 형세련 황지영

[사진] 김홍대 맹은희 박순우 박종현 윤영숙

[디자인] 강미영 국세은 이지은 임은영 한혁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